

No.20161214-001

제목: 청춘이 깨지다

저자: 마치야 료헤이

페이지수: 14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1월 11일



<내용소개>

지금 세대의 사람, 사회에 대한 거리감과 가치관을 담담하게 풀어낸 인상적인 청춘 소설

1962년 처음 만들어진 '문예상'은 일본 가와데쇼보 사가 주최하는 전통 있는 문학상으로, 신인 작가의 등용문이다. 이 작품은 2016년도 제53회 문예상 수상작으로, 최근 단행본화 되었다. 청춘들이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다른 사람이 따라 하기 어려운 개성 있는 문장이다 등의 호평을 받은 신예 마치야 료헤이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 작품은, 복서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슈키치'의 1인칭 시점이다. 그를 중심으로 친구 '하루오', 하루오의 여자친구 '토우코', 불륜 관계인 '카스미', 스파링 파트너 '우메오' 이 5명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느 날, 하루오는 토우코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며 함께 병문안을 가줄 것을 부탁한다. 슈키치는 처음엔 하루오 때문에 토우코를 만나러 갔지만, 이후 혼자 토우코의 병실을 방문하게 된다. 이 세 명의 사이는 점점 묘하고 비밀스러워진다.

슈키치는 다소 서툴고 내성적이지만 같이 있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에 있다. 대신 연인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피한다. 하루오는 남자다우면서도 귀여운 성격으로, 개그를 하지 않고는 가만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는 설정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긴장하는 것을 감추고 언제나 즐겁고 유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내면적인 압박을 갖고 있다. 토우코는 자신에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해탈한 듯 차분한데, 이 점이 슈키치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토우코는 남자친구인 하루오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차이가 생겨난다. 카스미는 남편과 아들이 있지만 마음 속에 공허함을 안고 있고 모든 것이 따분하다. 불륜 상대인 슈키치를 통해 그 허전함을 채우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복잡한 이들 관계에 끼어드는 우메오는 복싱에 꽤 소질이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감과 눈치가 빠른 편이다. 슈키치&하루오, 하루오&토우코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점이 슈키치와 비교된다.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만남과 사건들은 하루오, 토우코, 카스미가 모두 죽는다는 파격적인 결말로 치닫는다.

기분에 깔려있는 불안정함과 두려움, 그것을 해소해보려는 인물들의 시도가 잘 표현된 소설이다.

젊은이들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이나 삶과 죽음에 대해 지닌 가치관을 112페이지 남짓한 짧은 글 속에 압축해냈다. 함께 수록된 《탈피 보이》, 《독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푸름이 깨지다 / 탈피 보이 / 독서

<저자소개>

마치야 료헤이

1983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2016년 〈청춘이 깨지다〉로 제53회 문예상을 수상하였다.

No.20161214-002

제목: 내일의 식탁

저자: 야즈키 미치코

페이지수: 304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31일



<내용소개>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가족의 빛과 어둠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미스터리 소설

자녀를 학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비인간적인 부모들이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렸다. 가해자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혹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 하나같이 '사랑해서 그랬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며, 이웃에서 벌어지던 일들을 먼저 알아채지 못했던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한다.

소설 《내일의 식탁》 첫 페이지는 아들 '유우'에게 폭력을 행사한 엄마의 기록이다. 자세한 행위와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독자를 한 순간 긴장시킨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소설에는 세 모자가 등장하는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같은 '이시바시 유우'다. 한자는 다르지만 읽는 소리는 '유우'이며, 셋 다 초등학교 3학년의 동갑내기다. 공통점은 이것뿐이다. 세 엄마들은 36세 전업주부 '아스미', 43세 프리랜서 작가 '루미코', 30세 싱글맘 '카나'다. 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서로 면식이 없으며, 각 가정의 이야기가 별개로 펼쳐진다.

아스미의 집안은 화목해 보인다. 도쿄에서 일하는 남편과의 사이도 좋고 아들은 우등생에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다. 루미코는 개구쟁이 유우 형제를 돌보느라 바쁘고 작가로서의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 대신 일상의 육아 경험을 업로드 하는 블로그가 꽤 인기 있는 편이다. 카나는 어린 나이에 직장 동료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 당하며 위자료도 양육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키운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쉴 틈 없이 필사적으로 일하는 그녀를 보며 일찍 철이 든 유우는, 어리광 한 번 부리지 않고 집안일을 돕는다.

이들 엄마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아들 유우를 키운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무의식 중에 분노 해소 대상이 되어가는 '유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작가는 아동학대의 기저에 자리잡은 부부 사이의 문제, 엄마가 남편이나 아이에게 과하게 집중하며 생기는 부작용 등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볼 수 있을 법한 빛과 어둠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긴장감 있게 풀어나가며 마지막에는 예

상 외의 결말을 선사한다.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한 작품이다.

<저자소개>

야즈키 미치코

1970 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2002 년 《열두 살》로 제 42 회 고단샤 아동문학신인상을 받으며 작가로 데뷔하였으며 《나는 앞으로도 살아간다》로 제 45 회 노마 아동문예상과 제 23 회 쓰보타 조치 문학상을 받았다. 그 외 작품에 《불륜》, 《루리 언니》, 《사라져 없어져도》, 《14 세의 수평선》, 《그 푸름, 그 앞에》등이 있다.

No.20161214-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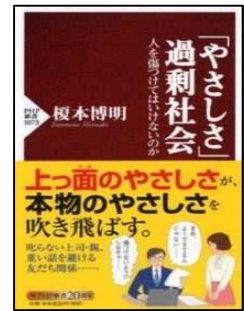
제목: 상냥함 과잉 사회

저자: 에노모토 히로아키

페이지수: 206

장르: 인문, 심리

출간일: 2016년 11월 16일



<내용소개>

여기저기 쓸모 없는 '상냥함'이 넘쳐 흐르는 사회, 정말 우리에게 상냥함은 무엇일까?

정확하지만 상처 받을 말을 하는 것 보아야 다소 거짓과 가식이 섞여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주는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낀다. 요즘에는 전자와 후자가 양 극단으로 나뉘는 성향이 강해져, 항시 '부드러움, 배려, 상냥함, 친절함'을 선보이는 사람이 큰 인기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해도 크게 화내지 않고, 상사는 부하가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변명을 잘 들어주며, 연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두 배려해줘야 한다는 의식이 은근히 퍼지고 있는데, 이것을 진정한 '상냥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 책에서 상냥함의 민낯을 파헤쳐 보려 한다. 일본사회에서 상냥함은 긴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화다.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을 뜻하는 '타테마에'와 본심이라는 '혼네'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누군가는 너무 가식적이라 말하겠지만, 본심을 드러냈다가 타인에게 실례를 범할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의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책 역시 상냥함이란 정체성을 고민하며 시작된 것이다.

본문은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반에는 '친절함'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고, 상처받기 쉬운 요즘 사람들의 성향과 연결시켜 딱 막힌 듯 답답함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중반부는 친구와 연인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로 주제가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등장하는 상냥함의 예를 들어본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상냥하고 친절해서 하는 언행인지, 대체 어떤 의미에서 상냥하다는 것인지 짚어본다. 후반에서는 관점을 약간 달리한다. 타테마에의 개념이 무너지며 사회에 증식 중인 이기적인 상냥함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티 나지 않는 상냥함,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 등 '관계의 문화'로 불리는 일본 특유의 상냥함이 일상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찾아낸다. 마지막 장은 진정한 상냥함을 잃지 않는 동시에 전략적인 친절에 휘둘리거나 속지 않는 비법을 생각해 보는 내용이다.

무조건적인 상냥함이나 친절함을 요구하는 이면에, 자기는 절대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너무나 친절 한 사람들은 절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의도인 것은 아닐까? 상냥함을 둘러싼 위화감과 갈등을 의식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더욱 반가울 것이다.

<목차소개>

- 제 1장: 그 사람은 정말 상냥한 것일까?
- 제 2장: 상냥함이 초래하는 답답하고 짝 막힌 느낌
- 제 3장: 그 친구와 연인은 정말 상냥한 것일까?
- 제 4장: 그 부모는 정말 상냥한 것일까?
- 제 5장: 그 상사는 정말 상냥한 것일까?
- 제 6장: 겉치레(タテマエ)가 무너지며 증식하는 이기적인 친절함
- 제 7장: <관계 문화> - 일본 특유의 상냥함
- 제 8장: <가짜 친절>에 속지 않기 위해서

<저자소개>

에노모토 히로아키

1955 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였다. 도시바 시장조사팀 근무 후 도쿄도립대학 대학원 심리학 전공 박사 과정, 가와무라단기대학 강사, 캘리포니아대학 객원 연구원, 오사카대학 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MP 인간과학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심리학을 바탕으로 기업연수 및 교육 강연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위로부터의 시선'의 구조》, 《경박하면서 자신만만한 사람》, 《'꿀불건'과 일본인》, 《칭찬하면 아이를 망친다》, 《타인을 끌어내리는 데 필사적인 사람》 등이 있다.

No.20161214-004

제목: '하지 않는' 시간 관리: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당신을 위한 시간 관리의 기술

저자: 사토 유키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1월 29일



<내용소개>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지 않는다!

시간 부족에 허덕이는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관리 기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몸도 하나 밖에 없으므로 한 쪽에 치중하면 다른 쪽에는 소홀해지게 된다. 주어진 일을 모두 해내더라도 퍼포먼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항상 촉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를 보면 우선 '대단하다'는 말이 나온다. 변호사, 신혼 상장 기업 사외 임원, NPO법인과 OB모임 감사, 대학 겸임 강사, 법률에 관한 기사와 서적을 쓰는 작가, 주부, 엄마. 7가지 역할을 척척 해낸다. 그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출산을 꼽는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24시간 전부를 자기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다.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다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엄마가 되면서부터 자녀에게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그 때까지 시간을 사용해 왔던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다. 저자는 자신이 시간을 사용하는 형태를 필요경비/ 투자/ 낭비로 분류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본 결과, 대부분이 낭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간당 아웃풋을 늘리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했다. 본문에서는 그녀의 경험에 기초해 다져진 50가지의 시간 관리 기술 노하우를 공개한다.

저자는 총 8개의 장에 걸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 시간을 잡아먹는 갖가지 '결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 공공대며 고민하지 않기, 과음 하지 않기 등을 제시한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까운 미래의 목표는 세분화 해 리스트로 작성해두면 집중력을 향상시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동 시간을 활용해 멀티태스킹 진행하기, 배우자 또는 제3의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가사와 육아 쉼어하기, 사람들과의 모임을 놓치지 않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업무 기술, 구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 등을 핵심만큼 집어 재치 있게 풀어냈다.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개인 차가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을 완벽히 따라 하기 보다는 내게 맞는 형태로 조금씩 변형시켜 적용해보자. 귀중한 시간을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 1장 결단 하나 하나를 줄이기 위해 “~하지 않는다” 선언!
- 2장 매일 TODO도 장래 불안도 “리스트”가 해결!
- 3장 멀티태스킹은 특기! 철저하게 “동시 진행”
- 4장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가사도 육아도 “쉐어”가 기본
- 5장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사람과의 만남”은 돈을 버는 시간
- 6장 가르쳐드립니다! 극도의 근로시간단축을 이뤄낸 나의 업무기술
- 7장 말하고 싶은 것을 쉽게 전하는, 알아줘야 할 전달방법
- 8장 바빠도 “구조화”로 공부 효율 UP!

<저자소개>

사토 유키

변호사. 2003 년 히토츠바시대학 법학부(사법과정)를 졸업하고 2005 년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2011 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Law School(LL.M.) 졸업 후, 2012 년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로 등록, 외자계 해외 사무소 등을 거쳐 2014 년 12 월부터 변호사 법인 토라노몬 중앙 법률 사무소 파트너를 맡고 있다. 각종 기업 업무, 특히 국내외의 기업 M&A, 투자 안건을 주로 맡고 있으며 벤처 지원도 하고 있다.

No.20161214-005

제목: 당신의 인생을 바꿀 '돈의 교양'

저자: 카야 케이이치

페이지수: 207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1월 25일



<내용소개>

부자로 살기 위해,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돈에 대한 지혜

2015년 한국 사회에는 '수저' 계급론이 등장했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경제적 능력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미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를 손에 쥐고 태어난 이들은 금수저,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낮은 계층은 흙수저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자녀 세대가 흙수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6명이라 한다. 부의 획득이나 계층 이동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부자가 되겠다'라는 꿈은 매우 허황된 것처럼 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고, 이와 비슷한 타이틀 역시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 타이틀에서는 돈에 대한 교양을 익힘으로써 '돈을 버는 힘'을 기르자고 말한다. 저자는 각종 금융 투자 직무를 거쳐 억 단위의 자산을 소유한 개인투자자다. 그 때 그 때 돈을 모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들이 많지만,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은 교양의 유무 여부에 달려있다고 이야기 한다. 사물의 배경과 성립 과정을 찬찬히 이해하고 다른 분야에 응용하거나 자기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이 곧 교양이다. 즉시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버리기 쉽지만, 교양은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서 비로소 위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돈에 대한 교양 역시 미리 쌓아두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본문은 총 6개 장으로 되어있는데, 1장에서는 우선 사람들이 왜 돈을 갖고 싶어하는지 알아보며 돈의 본질적인 의미와 모순을 이해한다. 2장은 작은 가치관의 차이가 커다란 경제격차를 야기한다는 점을 현실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논한다. 3장과 4장은 시간, 숫자, IT와 관련된 내용이다. 시간의 가치는 돈에 대한 금리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숫자에 강해지는 것은 부자가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이며, IT적인 센스가 있다면 사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해할 수 있다. 5장에서는 귀납과 연역, 상관과 인과 등 사람의 사고 회로를 정리하는 노하우를 전한다. 6장에서 돈의 교양을 활용하며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며 마무리한다.

저자는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 마치 상담을 해주듯 독자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조언을 한다. 평소 헛갈리던 것들은 명쾌하게 판단해주고 돈에 휘둘러 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돈의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제 1장: 당신은 왜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제 2장: 부자의 사고방식은 이 정도로까지 다르다
- 제 3장: 시간을 제어하는 자가 돈을 제어한다
- 제 4장: 숫자와 IT와 부자의 기초체력
- 제 5장: 돈을 얻기 위해서는 감정을 컨트롤 한다
- 제 6장: 돈에 대한 교양은 살아가는 방식에 나타난다

<저자소개>

카야 케이이치

경제평론가. 도호쿠대학 공학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닛케이 BP 사에 기자로 입사하였다. 노무라 증권 그룹의 투자 펀드 운용 회사로 전직하여 기업평가와 투자업무를 담당하였다. 독립 후, 중앙부처와 정부계열 금융기관 등에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며 현재는 금융, 경제, 비즈니스, IT 등 다방면에서 집필 활동 중이다. 억 단위의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신 부유층 연구 - 일본 경제를 바꿀 새로운 시스템》, 《포스트 아베노믹스 시대의 새로운 돈 늘리기 방법》, 《교양으로서 몸에 익혀 두고 싶은 전쟁과 경제의 본질》, 《부자의 교과서》, 《돈은 '역사'로 버세요》, 《억만장자의 정보정리 기술》, 《주식에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상식, 패하는 사람의 상식》 등이 있다.

No.20161214-006

제목: 베네치아 -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도시

저자: 미야시타 키쿠로

페이지수: 240

장르: 역사, 예술

출간일: 2016년 06월 22일



<내용소개>

아름다운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와 미술을 간결하게 정리한 책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해안선이 복잡한 석호 지대, 바다 위에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이 약 400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로를 통해 곤돌라 혹은 보트로 이동한다.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독특한 입지 조건 위에 깃든 여유롭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정경을 만들어내는 덕에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에게 변함 없이 사랑 받는 여행 명소 중 한 곳이 되었다.

이 책은 독자적인 미의 도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를 예술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설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베네치아는 421년 3월 25일에 건국되었으며 이 날은 수태고지 축일이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성모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본격적인 역사는 6세기경, 게르만족과 고트족·로바르드족·훈족 등의 습격을 피해 도망친 이탈리아 본토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며 시작되었다고 한다. 697년에는 최초 도제(=수상)가 선출되었다. 베네치아는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데에는 유리하지만 지반이 약하고 별다른 자원도 없는 땅이었기에 사람들은 자연히 교역에 눈을 돌렸다. 해상 중계 무역을 내세워 유럽과 동방을 잇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제4차 십자군 전쟁 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침공해 식민지로 삼으며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14~15세기 전성기를 맞이한 베네치아 공화국은 거칠 것이 없었다. 이탈리아 본토 곳곳에 통치 속국을 만들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주역으로서 ‘아드리아해의 여왕’이라는 별칭과 함께 공고한 지위를 얻는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대세의 흐름에 곧 밀려 난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면서 무역의 주도권이 대서양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국가들은 베네치아에 대항할 동맹으로 이미 결속을 다진 상태였으며, 아드리아해에 고립된 상태에서 쇠퇴해 간다. 부흥을 모색해 보았지만 끝내 나폴레옹에게 멸망한 것이 18세기의 일이었다.

본문은 이와 같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 내려간다. 천재화가들을 배출하고 유럽의 일류 예술가들을 배출해낸 1200년 역사. 그들이 곳곳에 남기고 보존해 온 건축물과 회화, 조각 등 예술 작품 속에서 베네치아의 탄생과 성장, 번영을 거쳐 막을 수 없는 쇠락 및 멸망의 길을 되짚어본다. 풍부한 이미지 자료 덕분에 저자와 함께 베네치아 거리를 걸으며 설명을 듣는

것 같이 생생하다. 유럽 중세 예술에 흥미가 있거나, 실제 베네치아 여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 유용할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서광의 바다 - 베네치아의 탄생 (6~12세기 · 초기 중세)

제 2장: 지중해 제패를 향한 길 - 공화국의 발전 (13~14세기 · 고딕)

제 3장: 황금시대 - 절정기의 베네치아 (15세기 · 초기 르네상스)

제 4장: 무르익은 세기 - 전쟁과 폭동의 르네상스 (16세기 · 번성기 르네상스)

제 5장: 쇠퇴로 접어드는 길 - 바로크의 베네치아 (17세기 · 바로크)

제 6장: 지는 해의 빛 - 베네치아의 종언 (18세기 · 후기 바로크 · 로코코)

종 장: 계속 살아가는 베네치아

<저자소개>

미야시타 키쿠로

미술사가. 1963년 아이치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문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고베대학 대학원 인문학 연구과 교수를 맡고 있다. 《카라바조-성성과 비전》, 《바로크 미술의 성립》,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과 건축》, 《카라바조 순례》, 《워홀의 예술》, 《욕망의 미술사》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214-007

제목: '이 사람이라면' 하고 따르는 리더가 되는 방법

저자: 사사키 준코

페이지수: 204

장르: 비즈니스,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2월 05일



<내용소개>

'여성 리더'의 선구자로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리더가 되는 법을 후배 여성들에게 전한다

올해 발표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OECD 조사국 29개국 중 최하위다. 2015년 말 기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은 3.7%, 2016년 100대 기업 중 여성 임원 비율은 3% 미만, 주요 공기업 중 여성임원은 0명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성이 리더가 되기 위해 '준비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 싶지만, 세계의 여성 리더들을 살펴보자.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을 보면 리더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 책은 일본 국내외 비즈니스 현장을 거친 대표적인 여성 리더, 사사키 준코가 쓴 여성을 위한 '리더 교습서'다.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 같은 그녀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처음 관리직을 맡았을 때 담당 부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 1년도 채 되지 않아 강등되었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고객과의 트러블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후 리더 직무를 경험하게 될 후배 여성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는 법을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들을 버리는 것이다. '강한 리더', '우수한 리더',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한 리더', '자신의 감정과 움직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더'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제안한다. 이상적이고 훌륭한 리더는 어차피 현실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무리하게 따라 해 봤자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울리는 리더십 스타일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 능력을 입증하고 싶어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에 휩싸이면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론을 완벽하게 행하기 보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집중해야 하며 유용한 몇 가지 스킬을 설명한다. 어떤 때에는 화를 내거나 우는 것이 효과적이며, 감정을 드러내며 교섭 하는 기술도 익혀두라고 한다. 사랑 받고 신뢰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한 최적의 연습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처음 관리직 제안을 받으면 망설이게 될 것이다. 가정과의 양립이 걱정되고 큰 책임을 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리더십이 부족해 실패하지는 않을지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리더 자리에 올라보

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 산기슭에서 내려다 본 풍경과 정상에서 내려다 본 풍경이 다르듯, 그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고 생각하며 성장하게 된다. 이 책은 먼저 같은 길을 헤쳐나간 선배의 조언이다. 당신이 언젠가 리더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항상 '강한 리더'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제 2장: 항상 '우수한 리더'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제 3장: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한 리더'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제 4장: 항상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더'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제 5장: 우선 자신을 향한 리더십을 발휘하자

<저자소개>

사사키 준코

효고현 출신. 게이오기쥬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83년 일본IBM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7년에 집행위원이 되었다. 또한 IBM 아시아 총괄 부서인 IBM 아시아 퍼시픽 본부와 IBM차이나에 파견되어 글로벌 환경에서 여성관리직으로서 활약하였다. 특히, IBM차이나에서는 2000명이나 되는 중국인 팀을 이끌었다. 2011년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집행위원 및 고객센터&서포트 제너럴 매니저를 맡았다. 주식회사 WEIC, FireEye주식회사를 거쳐 현재는 외자계 기업의 일본법인사장으로 근무하는 한편 강연과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Diversity Management를 지원하는 NPO법인 J-Win의 부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리더의 대표적 존재로 주목 받고 있다.

No.20161214-008

제목: WELCOME TO HARRY PORTER'S WORLD: 해리 포터 팬들을 위한 친절
한 가이드북

저자: 나카무라 케이시

페이지수: 389

장르: 평론, 엔터테인먼트

출간일: 2016년 12월 15일



<내용소개>

세계적인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시리즈를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파헤쳐본다

가름한 얼굴에 조그만 체구, 초록빛 눈, 낡은 옷에 동그란 안경을 끼고 다니며 이마에는 가느다란 번개 모양 흉터를 달고 있는 소년 '해리 포터'. 영국의 무명 작가 조앤.K.롤링은 1997년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통해 해리를 이 세상에 처음 선보였다. 이후 세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 전 연령대에서 폭넓은 팬층이 형성되었고 《반지의 제왕》《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에 등극하였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소설과 영화는 원작자와 감독 및 배우들에게 부와 명예, 인기를 안겨주었다. 불품없는 소년에게 숨겨진 능력과 출생의 비밀, 아이들의 우정과 선악의 대결, 신뢰와 사랑, 다양성, 편견과의 싸움, 유년에 대한 추억 등 사람들이 콘텐츠에 기대하는 바를 모두 채워준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 책은 '해리 포터 시리즈'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일종의 해설서다. 일본 내 해리 포터 팬들의 지지와 호평 속에 개정과 증보를 거쳐 새로 출간되었다. 소설 속에 녹아 있는 복잡한 구성과 고도의 설정은 물론, 작가가 영향을 받았거나 참고로 했을 고전 문학과 창작의 시대적 배경이 된 20세기 후반의 사조까지 끌어와 엮어낸다.

본문은 스토리 편, 트릭 편, 캐릭터 편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스토리 편>에서는 총 일곱 권의 이야기를 주인공의 '성장물'로 분석한다. 1권은 용기, 2권은 무의식과 수동성, 3권은 지적 판단, 4권은 싸움과 사회적 공정함, 5권은 일의 책임과 절차, 6권은 연애와 숭고한 사랑, 7권은 이들 가치를 통합한 목적 달성과 윤리를 테마로 삼고 있다. <트릭 편>에서는 해리 포터의 지적, 마법 트릭인 '현자의 돌', '타임 터너', '트릴로니의 예언', '호크룩스', '죽음의 성물'을 둘러싼 에피소드에 초점을 맞춰 그 밑바탕에 숨어 있는 사고 방식을 살펴본다. <캐릭터 편>은 주요 캐릭터인 해리, 헤르미온느, 론, 덤블도어 교장, 볼드모트를 다루고 있다. 부록은 '저주 받은 아이'의 분석을 통해 종교, 사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리 포터의 의미를 밝혀내는 내용이다. 글과 이미지가 모두 풍성하게 삽입돼 독자의 이해력을 높이고 보는 재미도 강화한다.

해리 포터를 사랑하는 저자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다. 소설 각 권의 줄거리와 사건

을 시계열로 정리하였으며 등장인물 및 마법 아이템까지 포함한 친절한 가이드북이다. 이전에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해리 포터를 좋아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팬이라면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INTRODUCTION: 해리포터의 세계로 초대하다

PART 1: 스토리 편 - 전 권의 줄거리와 해리의 과제

PART 2: 트릭 편 - 5대마법 아이템을 해명한다

PART 3: 캐릭터 편 - 대립 구도를 읽고 풀어내다

EPILOGUE: 해리 - 정직한 영혼

APPENDICES

<저자소개>

나카무라 케이시

1958 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났다. 홋카이도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과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종교학, 종교사학) 편집자 겸 번역가.

No.20161214-009

제목: 안녕, 인터넷

저자: 이에이리 카즈마

페이지수: 253

장르: IT

출간일: 2016년 08월 08일



<내용소개>

경계와 형체가 사라져 가는 인터넷 시대, 올바른 삶의 방식을 고민해본다

통신 기술의 발달,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점점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넓어지는 인터넷을 바라보며 인간은 무한한 자유와 가능성을 기대하였다. 누구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 하지만 24시간 언제나 무선으로 서로에게 접속할 수 있고 나아가 사물들이 망을 통해 소통하는 IoT 시스템까지 나타난 지금, 그 이상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소수들만 누리던 정보에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정말 유용한 것을 걸러내는 능력 유무에 따라 또 다른 계급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열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 폐쇄적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경고한다. 규정이나 룰 대신 이념과 문화로 연결되어 있던 인터넷 세계는 어느새 감시자들로 가득하고, 우연한 만남과 기회의 장은 개인화를 통해 작게 분열되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덩어리, 인터넷에서 형체 즉 '윤곽'이 사라져 간다는 점이다. 사람들을 실물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술의 진화로 받아들이고 환호한다. SNS는 현실과 다름 없이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것 같지만 그 너머 형체를 갖춘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언제든 사라질 허상이다.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확장되는 세계는 점점 커지는데, 정작 현실의 개인이 가지는 세계는 점점 좁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인터넷의 초기부터 윤곽을 상실하기까지의 시대적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인터넷이 사회와 우리들의 무엇을 바꿔놓았는지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시간, 공간, 사람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최소한의 수입에 만족하며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남은 시간은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출세와 돈 이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등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대중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저자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하고 히키코모리가 되어 세상에서 숨어있을 때, 그를 구해준 것은 인터넷이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꾸준히 인터넷을 옹호하고 그 가치를 설파해 왔다. 본문의 초반을 보면 마치 저자가 인터넷과는 결별하겠다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저자의 목

적은 인터넷에 갇혀 있던 '윤곽'을 되돌려 주고, 이미 인터넷과 IT 기술을 떨어뜨릴 수 없는 상태에서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색다른 사상 여행에 동참해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서 장: 인터넷이 사라지기 전에

제 1장: 친절했던 세계 - 유저에서 플랫폼이 되기까지

제 2장: 안녕, 인터넷 - 그 윤곽을 상실하기까지

제 3장: 윤곽을 잃은 세계 - 아직 그곳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나

제 4장: 인터넷은 '사회'의 무엇을 바꿨을까

제 5장: 인터넷은 '우리들'의 무엇을 바꿨을까

제 6장: 우리들은 인터넷의 윤곽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저자소개>

이에이리 카즈마

1978 년 후쿠오카 현에서 태어났다. 집단 따돌림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히키코모리가 되었다. 취직 후에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일하고 싶다며 창업을 결심했다. 2001 년 자택에서 <롤리팝! 렌탈 바>를 릴리즈 했다. 2003 년에 주식회사 paperboy&co.를 설립하고 2008 년 최연소로 JASDAQ 시장에 상장하였다. 퇴임 후에는 <CAMPFIRE>, <BASE> 등의 웹 서비스를 기획하여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시부야 <ON THE CORNER> 카페 운영도 하고 있다.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현대의 피난처 <Liverty House>를 열정적으로 전개 중이다. 2014 년에는 도쿄도 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주요 후보에 이어 88,936 표를 얻었다. 저서로는 《이런 나라도 사장이 될 수 있었다》, 《돈이 가르쳐 준 것》,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등이 있다.

No.20161214-010

제목: 3살부터 시작하는 종이 접기 놀이

저자: 쓰키지 제작소

페이지수: 8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08년 03월 18일



<내용소개>

놀면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종이 접기 모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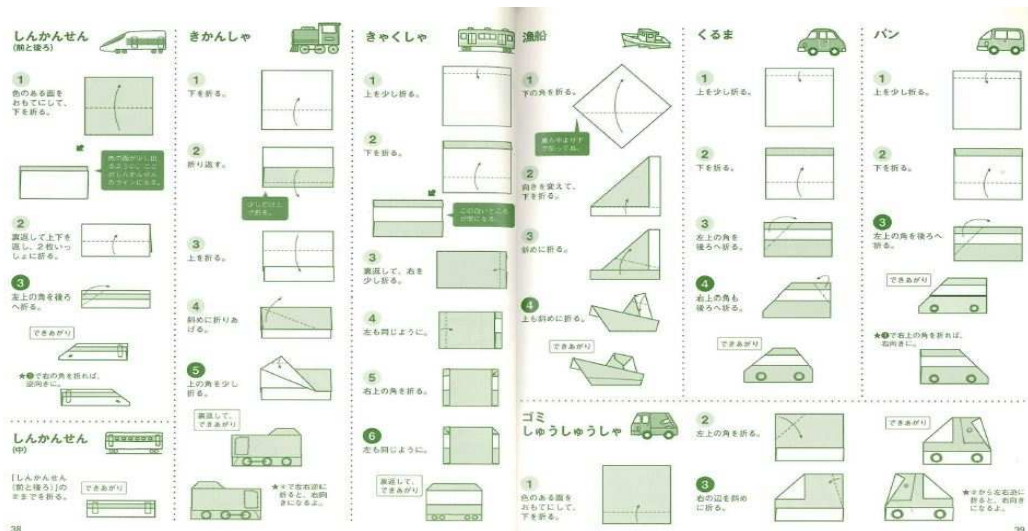
종이 접기는 아이들이 놀면서 소근육 강화와 창의력·공간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놀이 활동입니다.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종이 접기를 처음 시작하는 3살 무렵의 어린 아이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만 모아 소개합니다.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종이가 접는 방향과 방법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접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종이를 손으로 쥐었다 놓거나 꼭 누르면서 만드는 것부터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맛있는 빵, 전화기, 새와 꽃, 웃는 여우와 귀여운 강아지, 소꿉놀이용 장난감, 기차와 자동차 등 똑같이 네모났던 종이들이 다양한 대상으로 변신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모서리와 모서리가 어긋나거나 선이 좀 비뚤어져도 형태를 완성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부담 없습니다.

접는 과정은 하나하나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어 금방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가 옆에서 도와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숙달된 뒤에는 혼자 힘으로 완성하는 보람을 맛볼 수 있는 총 110개의 종이 접기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문 이미지>





<목차소개>

반짝반짝 훌륭한 액세서리 / 갓 구워서 맛있는 빵집 / 우물우물 먹고 싶은 샌드위치 / 봄, 봄이 왔다 / 같이 놀자! 물가의 친구 / 모두 싱글빙글, 즐거운 친구들 등

<저자소개>

쓰키지 제작소

조형작가 3 인과 프리랜서 편집자 3 인으로 구성된 제작 유닛. 조형과 아동 놀이를 테마로 서적, 이벤트, TV 등 매체에 상관없이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5 번으로 접는다! 놀 수 있는 종이 접기》, 《간단히 즐길 수 있다! 깜짝 놀라는 만들기》등이 있다.

No.20161214-011

제목: 엄마의 빨간 가방

저자: 하나야마 카즈미

페이지수: 28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01일



<내용소개>

길 위에서 다양한 '엄마의 가방'을 발견하는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꼬마 '슈우'는 엄마를 따라 외출합니다. 우산을 쓰고서는 엄마의 빨간 가방을 눈으로 보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는 길은 빗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차박차박' 소리 내며 빨간 색을 따라가던 슈우는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던 빨간 색은 엄마의 가방이 아니라 우체통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가 뒤돌아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다시 엄마의 빨간 가방을 따라 걸어가던 슈우는 또 놀랍니다. 과일 가게에서 내놓은 사과들이 엄마 가방처럼 빨간 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엄마를 금방 찾아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리를 걸어가던 중 눈에 들어온 것은 빨간 가방이 아닌 생선입니다. 고양이와 생선가게에서 물고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빨간색이 슈우의 앞에 나타날까요?

이 그림 책은 길에서 엄마의 가방과 똑 같은 색의 사물을 발견하는 아이의 시선을 표현한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한 순간에 주위 물건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빨간 색을 지닌 다양한 물건을 배우고 상상해보는 동시에, 밖에서 길을 갈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하나야마 카즈미

치바 현에서 태어났으며 여자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였다. 건축설계사무소, 디자인 사무소 근무를 거쳐 워크숍 등에서 그림책을 배웠다.